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3년 2월 3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농축산유통과	담 당 자	• 친환경식품팀장 • 담당자	유해순 ☎440-4386 권선아 ☎440-443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대표브랜드 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 순항

- 3일, 20톤 2차물량 상차 ... 올해 총 100톤 수출예정 -
- 강화섬 쌀 해외판로 지속확대로 농가 수입 증대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의 대표 브랜드 ‘강화섬 쌀’이 3일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도정공장에서 상차해 오는 7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20톤을 캐나다 토론토 첫 수출에 이은 2차 물량으로,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20톤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강화군, 캐나다(토론토) 유통물류 업체인 갤러리아(Galleria) KFT는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강화섬 쌀’은 공해유발업소가 없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 국내에서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쌀로, 1월 중반기부터 토론토 현지마켓에서 판매가 시작돼 교민과 현지인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시는 올해 총 5항차에 걸쳐 강화섬쌀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반기 중에는 농산가공품의 수출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수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강화섬쌀이 판매가 시작된 만큼, 좋은 반응의 결과로 인천 농산물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품질 관리에 보다 더 힘쓰겠다” 고 말했다.

#### <관련사진>



▲ 지난해 12월, 캐나다로 수출되는 강화섬 쌀(20톤) 1차 물량이 컨테이너에 옮겨지고 있다.